



## 글씨로 꽃피운 뷰티 숍, 코스타 메사의 슈에무라 숍

글씨로 그림을 그리는 홍콩의 젊은 아티스트 창 킨와 (Tsang Kin-wah)가 미국 캘리포니아 코스타 메사 (Costa Mesa)에 새로 문을 연 슈에무라 숍에 벽화를 남겼다. 천장에서 벽을 타고 내려오며 아름다움을 위한 숍에 맞는 키워드를 나열하며 꽃과 같은 조형적인 형태를 만들어냈다. 그는 평소 중국어와 영어 단어를 사용해 메시지가 있는 공간 그래픽을 선보이는데 전시와 매장 인스톨레이션을 통해 그의 작업들이 소개된다. 그는 이런 패턴이 보는 시점에 따라 각기 다른 느낌을 주며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데 매력을 느껴 일종의 글자 유희처럼 그림을 그려나간다.

문의/ [www.tsangkinwah.com](http://www.tsangkinwah.com), 에디터/ 김명연

